

지역 소식통

제 58주년 소방의 날
고창소방서 기념행사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9일 소방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소방의 날은 국가직 전환 원년의 해로 소방과 국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백승기 서장의 기념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또한 참석인원을 최소화 했으며, 행사장 방역, 참석자 발열 검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을 간략하게 진행하며 소방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창=김영식기자

울 공공비축미 건조벼
부안 동진면 수매 본격

부안군 동진면(면장 김명신)은 9일 당상창고를 시작으로 2020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에 들어갔다.

동진면의 올해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물량은 1030톤으로 오는 27일까지 당상·하장·후산창고 등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 5개소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일미 등 2종이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품종검정제(DNA검사)를 도입해 매입대응능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위반가능성은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되 수매 직후 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액은 전국 쌀 가격이 결정되는 오는 12월 말에 이뤄진다.

/부안=김석진기자

테마가 있는 벽화길 조성

정읍 수성동 구미마을 담벼락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청뒤편 1.2km구간, 라벤더·트리아트·포도존 등

정읍시 수성동 구미마을의 건물 외벽과 담벼락이 정읍의 향기를 담은 한쪽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정읍시청 뒤편 구미마을 1.2km 구간에 향기도시 정읍을 테마로 5개의 향기 치유길(라벤더, 구절초, 유채꽃, 단풍, 벚꽃과 지형·공간을 이용한 포인트 벽화, 테마 골목 등을 조성, 벽화 정비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미마을 벽화길은 지난 2016년에 지역공동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재능기부를 통해 처음 조성됐다. 당시 구미마을

골목 400m 구간에 '응답하라 1979', '숨은 보석 찾길' 등 마을 그대로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그림을 선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벽화의 특성상 햇빛과 바람, 습기 등 자연적 영향으로 노후화되고 퇴색되면서 담장벽화 정비와 마을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1억4,400만원을 투입해 노후 벽화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재정비된 구미마을 벽화길은 라벤더와 구절초 등 정읍을 대표하는

각종 꽃들의 색깔을 살린 향기 치유길이 조성됐다.

또 각 세대에 일관성 있는 우편함을 제작 설치하고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골목마다 개성과 특색을 살려 다채롭게 꾸몄다. 특히, 단순히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한 트리아트를 조성함으로써 미관개선과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벽화를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미마을 벽화같이 갖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읍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민원실 직원들 보라색 근무복 착용

'향기공화국 정읍' 이미지 상징 민원업무 소속감·책임감 부여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역할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들에게는 신뢰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보라색 근무복을 착용한다.

정읍시는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전하고 청렴한 공

직문화 조성과 적극 행정, 친절 서비스 제공에 민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근무복을 착용한 직원들은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어 품위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로 착용한 근무복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따뜻한 보라색으로 '향기공화국 정읍'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깔끔한 디자인의 자켓이다. 시는 근무복 착용을 통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신뢰감 등 긍정적인 느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새로운 근무복으로 같이입은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민원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와 QR 전자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민원창구 안심 가림막 설치,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역할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신뢰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보라색 근무복을 착용한다.

고창 진입도로에 모양성 상징조형물 세운다

도비 2억1600만원 확보

고창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모양성을 상징하는 공공조형물이 세워질 전망이다. 9일 고창군은 최근 전북도에서 주관한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2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7억 2,000만원을 들여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모양성이 아름다운 고창에 깃들다를 테마로 모양성을 상징하는 관문형 조형물 제작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고창읍 진입부에 상징조형물이 없어 지역 홍보전략상 필요성이 커 왔다.

고창군청 이종연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징조형물이 고창군의 랜드마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창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자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고창읍내 휴먼시아아파트단지 내 LH 꿈꾸는작은도서관이 9일 개관했다.

고창읍내 'LH 꿈꾸는작은도서관' 개관

휴먼시아 아파트단지내

고창군 고창읍내 휴먼시아아파트단지 내 LH 꿈꾸는작은도서관이 9일 개관했다.

작은도서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정기원)가 함께 2020년 LH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기존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0여평의 공간은 열람석 20석과 2500여권의 책들로 채워져 있다. 주민들은 읽고 싶은 책을 빌려 읽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접하며 이웃주민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도서관은 한국작은도서관협회로부터 도서관 운영요령 등을 전수 받은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남)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초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주민들의 이용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남 운영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의 도움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조성돼 의미가 크다"며 "작은도서관이 입주주민들의 독서갈증을 해소시키고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주민배심원 최종회의

민선 7기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개선방안 제안

정읍시는 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최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와 주민배심원단,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 대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로 추출해 38명의 주민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하고 총 3차례 걸쳐 회의 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조정안으로 올라온 20개 공약사업에 대해 분임별 심도 있는 토의와 투표가 진행됐다. 이어, 분임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투표 등을 통해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

안했다.

시는 배심원단이 12월 중 공약사업 조정 권고안을 보내오면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단 참여를 통해 민선 7기 정읍시가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을 위한 공약으로 만드는 데 작게나마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시민과의 화합과 합치로 조정된 민선 7기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 더 나은 정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